# 서민가계, 채무는 확 줄이고 행복은 쭉 올리고

캠코,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성과 쏙쏙

## 시행 1년새 광주·전남 2만2300여명 혜택

• 국민행복기금

**1억미만 6개월 이상 연체**

**최고 50%까지 채무 탕감**

• 바꿔드림론

**대부업·캐피탈 고금리 대출**

**은행 年8~12% 저리 전환**

#1. 9년 전 건설회사를 퇴직한 뒤 직접 건설회사를 세워 운영했던 유모(62·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경기불황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빚을 떠안게 됐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유씨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생활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빚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었다. 유씨가 가족불화에 병까지 얻게 돼 힘든 나날을 보내던 무렵, 국민행복기금 정책이 시행됐다. 시행 첫날 채무조정을 신청한 유씨는 기초수급자로 특수감면율 70%를 적용받고, 나머지 빚은 10년 분할로 상환하는 기회를 얻었다.

#2. 가까운 지인을 위해 채무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던 박모(55·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4000만원의 빚을 지인 대신 안게 됐다. 낮은 신용 탓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박씨는 연 39%에 이르는 고금리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높은 이자 때문에 이자 상환조차 힘들어졌다. 채권추심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그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의 굴레를 벗어났다. 광주은행은 5년간 연 12%의 저금리 대출로 박씨의 빚을 전환해줬고, 박씨가 부담해야 할 상환액도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과 바꿔드림론이 서민층 채무경감의 '빛줄기'가 되고 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은 시행 초기 '일부 채무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벗어나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이후 1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채무조정으로 지역민 1만9000여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은 3300여명에게 310여억원을 지원,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미만(원금)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30~50%의 채무를 탕감받게 되고 기초수급자인 유씨처럼 특수채무자는 7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은 채무자들은 최장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게 돼 채무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1년간 전국적으로 24만9000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캠코가 설정한 당초 목표의 3.8배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지역민은 이중 9.2%(1만9000명)에 이른다.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은 1108만원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537만원이 감면됐다.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면 감면금액은 1689만원 수준이다. 총 감면액은 이자 1조9000억원과 원금 9000억원으로 모두 2조8000억원에 달한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6개월 이상(2013. 2. 28 기준)의 연체된 채권을 인수해 일부 금액을 감면하고 신용회복을 지원

| | |
|---|---|
| 신청혜택 | 이자 전액과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 |
| 확인방법 |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인수 여부를 전화(국번없이 1397)로 확인 후 인수되었을 경우 안내에 따라 채무를 조정 |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은행의 8~12%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출

| | |
|---|---|
| 신청혜택 |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고금리대출 총액 1000만원 이하는 3개월 이상) |
| 신청대상 | ①신용 6~10등급<br>• 급여소득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br>• 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 : 연소득 4500만원 이하<br>②신용 1~5등급<br>•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바꿔드림론 역시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3300명에게 지원돼 1인당 이자부담을 1225만원에서 893만원으로 절감시켰으며 전국적으로는 전국 4만8000명이 혜택을 입었다. 국민행보기금과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서민에게 저금리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은 495건이 접수돼 19억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성과는 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별화된 접근으로 가능했다. 광주은행은 대출담당직원을 캠코 창구로 파견, 아예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장소에서 지원자들을 상담했다. 전국에서 캠코 광주·전남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오영일 캠코 광주·전남본부 기획신용지원팀장은 "예상보다 많은 지원율에 업무부담이 늘어 몸은 힘들었지만 성과에 매우 만족스럽다"며 "지역 특성상 생활 여건 때문에 창구를 찾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2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신청자격을 연 20% 이상의 대출금리에서 연 15%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6.4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길거리 플래카드 홍보를 통해 지역민에게 국민행복기금을 알릴 방침이다.

김영봉 캠코 광주·전남본부장은 "고객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원 확대와 실질적인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채무자들이 빚을 털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알선까지 연계해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창구가 국민행복기금 상담을 받는 채무자들로 가득 차 있다. 〈캠코 제공〉

■ 주간 증시 포커스

## 美 저금리 기조…실적대비 낙폭과대株 관심을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은 약했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유입은 지속됐다. 예상치를 상회한 중국의 PMI지표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함께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작용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나타났던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지난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된후 주후반에는 업종대표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대되며 1조원이 넘는 순매수가 유입되었다.

가파른 상승속도에 대한 부담이 표출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어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성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둘째 주부터 코스피시장에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는 총 2조원을 넘어섰고, 인도와 대만 등 신흥국 증시에서도 외국이의 매수세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달러, 유로, 엔 등 선진국 통화의 이상 등락이 마무리 되면서 신흥국 통화 전반에 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선진국 통화의 경우 달러의 강세반전과 유로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달러 강세가 위험자산 회피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나, 최근 신흥시장 전반의 각종 위기요인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로 발전하지 않는 선에서 달러 약세의 부담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엔, 위안화 동향도 안정적이다. 엔화는 뚜렷한 방향을 보이기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던 중국 위안화 약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일본과 중국,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합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통화가치 하락이 진정되면서 한국시장에 대한 우려도 희석되고 있다. 이렇듯 안정적인 통화의 등락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예상하는 가운데 최근 실적예상치 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의 경우 이익추정치가 3월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상승률이 4.1%에 불과하고, 증권업종도 시장과 많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익추정치와 주가변동률의 차이를 보면 제약바이오, 증권, 유통, 미디어 순으로 과도한 낙폭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화폐단위 '조' 넘어 '경' 속속 출현

**1에 0 이 16개 붙어**

**경제규모 커진 때문**

'10,630,600,000,000,000'(1경 630조 6000억원). 국내 경제주체들의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즉 한국의 국부 규모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兆)를 넘어 경(京) 단위 화폐통계가 파생상품 시장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실물경제 부분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경은 1조의 1만배로, 1에 영(0)이 16개가 붙는 단위다.

2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 단위 화폐 단위를 쓰는 통계가 하나둘 늘고 있다.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상의 금융자산은 작년말 1경 2630조원, 금융부채는 1경302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파생상품이나 자본시장에서는 일찍부터 경 단위 통계가 등장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증시관련 대금은 2012년 처음으로 1경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도 1경4717조원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전자단기사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시관련 대금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총액은 1경원을 넘은지 오래다. 2006년 처음으로 1경원을 넘어선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지난해 4경5101조원을 기록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도 1경2020조원이었다.

최근 경 단위 화폐단위 통계의 확산은 무엇보다 경제 규모 증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에 비해 화폐단위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 5만원권이 나오기 직전에 화폐액면 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합뉴스